

어린이 공간교육의 국내외 사례 비교연구

-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윤선* · 임승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A Study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Civic Education in Place for Children - A Case Study on the United States, Britain, Finland, Japan, and South Korea -

Hue, Youn-Sun* · Im, Seung-B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 public's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good design has increased, and the opportunities for their participation in space planning and the design process are expanding. However, the public still lacks understanding of the role(and importance) of space and environment and is not experienced in expressing their opinion on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At this point, 'Built Environment Education for Kids' will be the key to understanding space and environment as future citizens and to developing the ability of problem-solving and expressing their opinions.

This study aim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ublic as well as experts, and to make a better urban spac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Built Environment Education.' In 27 countries around the world(more than 110 institutions), 'Built Environment Education' from childhood is being implemented. Such movements aim to make people participate in the space design and decision-making process by understanding a fundamental element of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ce perception. In this study, the United States, Britain, Finland, Japan and South Korea's 'Built Environment Education' are discussed. Above all, the definition, range and target of 'Built Environment Education' are discussed. For each case, the purpose and effect, laws and educational processes, systems and roles, and examples of programs are analyzed. Through reviewing each attribute and their implications, a conclusion is drawn on the aspects we have to consider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Built Environment Education' in Korea, such as consideration of the locality, organizing systematic networks and composing a pool of experts, building proper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is case study of 'Built Environment Education' can help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public and build their strength in establishing a better future spa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urpose, laws, systems, and contents,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nd build the foundation for an educational system and develop an appropriate program that best suits our society.

Key Words: Built Environment Education(BEE),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trengthening of Residents' Abilities, Education Programs, Children's Participation

Corresponding author: Youn-Sun Hu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4886, E-mail: younsun@smu.ac.kr

국문초록

최근 삶의 질과 좋은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공간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일반인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공간과 환경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도시개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아동기의 ‘공간교육’은 미래 시민으로서 공간과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도시 개선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도시 공간을 만들고자 어린이의 공간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였다. 전 세계의 27개 국가(110여개 기관)에서는 아동기부터 ‘공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공간환경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공간감을 키워 공간의 조성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 한국의 공간교육을 고찰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교육을 정의하고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목적 및 효과, 관련 법·제도 및 교육과정, 체계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특성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하여 지역성에 대한 고려, 체계적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 구성, 관련 제도와 정부의 역할 정립 등 국내 공간교육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교육의 사례 고찰은 더 나은 미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 사례의 목적, 제도, 체계,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건조환경교육,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아동참여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삶의 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공간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다양하고 질서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Alexander, 1975)는 사고에서 기인한다. 특히 조경이 다루는 공간은 대부분 공공공간(public space)으로, 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동의하는 상식적 규칙이나 규범 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이영범 등, 2009). 그러므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참여자간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소통적 참여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즉, 사용자의 참여가 디자인과 계획을 명료하게 만들 수 있으며, 참여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Sanoff, 1990).

이런 ‘소통하는 조경(communicating landscape architecture)¹⁾’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의견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를 전문가가 제대로 이해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인의 역

량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동시에 공공공간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고,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즉, 일반인이 좋은 디자인에 대해 눈과 마음을 열고, 공간과 인간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수립된 건축기본법²⁾에도 공간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그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국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공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0년대에 대부분 공공교육과 연계되기 시작되었다. 2002년 이후, 세계 20여개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간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재정적·학술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의 역할과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학습시키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이해시키며, 시민들의 삶터·쉼터·일터·배움터인 공간에 대한 생각과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공간교육이 미래의 공간 조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시민을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주인의식을 고양시켜 매혹적인 환경과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인의 의식 변화를 토대로 더 나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티와의 상호관계 및 역할 인식 등 일반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외 공간교육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공간교육이 명시된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와 현황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는 환경교육과 디자인교육 등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이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소통적 계획 및 참여디자인에 관한 연구

소통과 참여의 과정은 어린이가 지역 커뮤니티와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 또한 교육적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과 문화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김연금 등, 2008).

Thompson(1999)은 소통적 행위를 장소만들기에 적용하여 좋은 디자인은 서로 다른 입장 간의 대화를 요구하며, 상호 이해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조경가가 조경의 사회적 측면을 믿는다면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도 인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연금과 이규목(2003)도 조경 계획 및 설계에서 주민을 비롯한 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조경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진솔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시작해야 한다는 이규목(2002)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Roe(2000)는 전문가가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성장적 실천을 유도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서로 다른 입장 간의 상호이해와 일반인,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잘 디자인된 공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적 합의과정을 조경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등 시민성 함양에 연결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통적 조경 계획 및 설계 행위의 바탕에는 일반인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 어린이의 공간지각 및 인지에 관한 연구

Ward(1987), Roe(2006)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미시적으로 경관을 인지하고, 흥미와 모험을 기준으로 공간을 인식한다는 것을 검증했다. 즉, 어린이의 공간지각과 인지에 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Feimer(1981), Holahan(1982), 임승빈(1998)은 대규모 환경에서 사물의 위치 및 거리에 대한 공간인지는 성장함에 따라 자아중심적 단계, 고정된 물체를 중심으로 인지하는 단계, 상호인식 단계 등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정리하였다. 이는 어린이는 환경과의 반응을 통해 나뉘대로 환경에 대한 인지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한다는 뼈아제의 인지 발달과정을 토대로 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상준(2010), 윤주연(2004)은 초등학교 3~6학년은 각 단계들의 연계성, 관찰과 추론의 차이,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회적 책임과 사람·장소의 관련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Yi-Fu Tuan(1977)의 어린이의 장소에 대한 개념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 지리적인 것으로 명확해진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또한, 김원필(2002)은 아동기의 환경에 대한 정서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동기의 정서적 경험은 환경 및 영역성에 대해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미래의 개인적·사회적 공간에 대한 환경적 태도(attitude)와 가치(value)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아동기의 공간과 장소, 환경에 대한 경험은 중요하며, 어린이의 인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참여 및 교육과정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경우 교육을 통한 환경개선 및 책임의식 고양, 의사결정 능력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 효과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많은 연구자에 의해 협동학습을 통한 상호관계 및 역할, 지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정리된 바 있다(Savery and Duffy, 1995; 정은희, 2004). 협동학습은 시민이 될 어린이의 태도를 형성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고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보고서(Hadow Report, Plowden Report 등)는 초등학교 교육이 경험, 활동, 작업, 놀이 등을 통한 창조적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인호(2002)는 호주 퀸즈랜드 교육부(1993)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어린이는 자신과 환경의 상호관계, 집단 구성원의 역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희망하며, 상상놀이와 게임, 관심과 취미에 몰두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을 통해 차후과정에 대한 참여의사와 책임감이 증대하여 유지관리 비용 절감, 애착심 증대 등의 효과와 공간에 대한 탐구의식 고양, 협동과정을 통한 사회성 발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권은숙(1997), 김연아(1998), 김혜숙과 권은숙(1999), 손연석(2005)은 조기 디자인교육이 어린이의 개념적 사고와 인지능력 발달에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능력 개발이 가능하여 다양한 영역과 행동들을 포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협동·참여, 놀이·작업이 적절하게 조화된 교육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등의 사고·인지능력, 공간에 대한 탐구의식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의 시민적 책임감, 공동체 의식, 주인의식, 사회성을 고양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공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능동적·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배양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적인 작동을 도모할 것이다.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외 27개국, 110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Built Environment Education', 'Civic Education in Architecture' 등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여 '공간교육(Civic Education in Place)³⁾'이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조경·도시·건축을 그 대상범위로 하며, 공간과 환경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간교육의 기법을 비교하는 기초연구로서 국외의 사례 고찰을 통해 국내와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1)공간교육을 시행하는 국가, 2)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 등 공간환경 관련 정책이 존재하는 국가, 3)공간의 가치를 반영한 국가브랜드 지수(Anholt-GfK Roper NBI, 2008)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 4)OECD 주관 국제학생성취도 평가(PISA)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 5)자료의 수집·분석이 용이한 국가 등의 기준으로 영국, 미국, 핀란드, 일본 등 4개 국가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하였다⁴⁾.

한국의 경우, 2009년 개관한 '건축문화학교(Architecture Academy for all)'의 '어린이 건축 교육'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건축기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국내의 적용가능성 검토와 관계성 정립을 위하여 환경교육과 디자인교육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2. 연구방법

각 공간교육 사례 국가에 대하여 목적 및 효과, 관련 법·제

표 1. 사례 국가의 비교·분석 틀

비교·분석 틀	분석 내용
목적 및 효과	·공간과 장소, 디자인 프로세스, 사회적 역할과 능력, 상호관계와 파트너십, 조경·도시·건축 등 관련 영역, 역사와 변화,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일반인의 소통 관계
관련 법·제도 및 교육과정	·정책 및 법·제도 변화 ·현 교육과정
체계(system) 및 역할	·파트너십(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제 간 연결 ·에듀케이터 양성 ·재정 지원 ·연구 진행 ·아카이브 구축
프로그램 내용	·(사례 고찰) 대상 / 범위 / 내용 및 방식 / 연계과목

도 및 교육과정, 체계(system) 및 역할,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1 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례 국가의 관련 기관 방문, 프로그램 참가,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및 문헌 조사⁵⁾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연구자가 직접 공간교육 학교(Arkki)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2010년 3월~5월 동안 이메일 인터뷰와 인터넷 조사, 일본은 인터넷과 문헌 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국외 공간교육은 UIA BEE Network(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 Built Environment Education, 세계건축가협회의 공간교육연맹)와 PLAYCE(Play+Place) 등 국제기구에 20여 개 국가의 110여개 기관이 연계되어 가이드라인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간교육은 어린이에게 비판적 사고력, 감수성, 공간 인지능력, 상상력, 시민성과 사회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1. 공간교육의 목적 및 효과

1) 미국

미국의 공간교육은 일반인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유도하며, 공간의 계획 및 설계과정을 이해하여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유아기부터 관찰력, 비평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여 미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축하게 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 커뮤니티, 관련 전문가 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며, 조경가, 도시계획가, 건축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의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장소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국

영국의 공간교육은 지역 사회 및 장소에 대한 상호이해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잘 디자인된 장소의 가치와 역할을 전달하여 마을과 도시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역사, 문화, 그린정책(Greener London Neighbourhood or Locality)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성을 함양시킨다. 또한 타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장소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여 어린이의 직업적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3) 핀란드

핀란드의 공간교육은 대중에게 기본적인 행동 양식의 틀을 제공하는 장소가 예술, 문화, 기술의 결합체로서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모든 시민은 삶의 터전인 공간환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하고 언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깨닫게 하며,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가 공간을 경험하여 각자의 창조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일본

일본의 공간교육은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가 공간환경과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여 지식 습득, 창조의 중요성 이해, 사회적·미적 가치관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토대로 새로운 견해를 도출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서 미래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자질을 배양하고자 한다.

5) 한국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공간환경의 질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삶의 터전을 형성하는 공간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공간환경의 조성 과정을 이해시킴으로써, 미래의 도시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6) 목적 및 효과의 시사점

대부분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 공간 조성과정에서의 역할·

표 2. 공간교육의 목적 및 효과 비교 검토

국가명	공간교육 목적 및 효과
미국	· 지역 커뮤니티 등 공간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영국	· 삶의 질과 공간의 관계 이해 및 중요성 인식
핀란드	· 디자인 프로세스 이해
일본	· 전문가와 일반인의 소통적 관계 구축
한국	· 도시개선에 대한 사회적 역할 이해 및 참여 소양 양성
	· 통합적 사고 능력 및 표현능력 함양

의무·책임감 인식, 역사적 공간과 현대적 공간의 가치 인식,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의 관계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공간의 질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언어 습득,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분석적 의사결정 경험, 그룹 활동을 통한 관찰력과 문제해결능력 고양, 감수성과 상상력, 비판적 판단력 배양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표 2 참조).

2. 공간교육 관련 법·제도 및 교육과정

1) 미국

1991년, 미국에서는 정규교과과목(K-12)에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인 'Learning by Design'이 도입되어 미래 시민인 어린이의 공간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Architecture and Children Curriculum이 1996년에 정규교과과목으로서 각 도시의 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었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20여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건축센터(Center for Architecture)에 의한 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2005년 관련 단체 및 기구의 네트워크(A+DEN)가 구성됨에 따라 공간교육이 가속화되었다.

2) 영국

영국은 정부 자문기관인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공간환경위원회)에서 1990년대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교육 기관인 Open-City(구 Open House)가 1993년 개관하여 런던의 33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공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1999년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2000년 비핵심 법정교과인 'Art and Design' 과목에 자연에 대한 관찰(6세), 장소에 대한 감각(10세) 등 공간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후 법정교과인 'Design and Architecture'의 'Architects in Residence' 과정(선택과목)을 통해 Key Stage 1~4(5세~15세)의 어린이에게 공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반인에 대한 공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2년, 기본 예술에 관한 법률(Act on Basic

Art Education)의 제정으로 예술에 대한 기본교육의 중요성이 자각되어 1993년, 예술과목에 건축·도시·조경 과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1998년,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에 의해 공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00년 토지이용과 건축법(Land Use and Building Act)에 의해서 일반인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가 중시되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던 공간교육은 2006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과목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4) 일본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샌다이 어린이 건축센터(Architecture and Children Network of Sendai)와 같이 워크숍 등의 공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신설되었다. 2002년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에 의해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Study)이 도입되면서 환경교육과 디자인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최근 관련 단체 및 기구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프로그램이 풍부해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제도적 토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5) 한국

2008년 개정된 건축기본법에 공간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건축기본법 제4조,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0조). 공간교육(기초 건축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10년 제정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인 '국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실현'에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건축문화 교육 확대'가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하지만 공간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건축문화학교에 의한 이벤트에 국한된 일회적 행사와 전문고 등 과정(농업고등학교의 조경과, 공업고등학교의 건축과)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6) 관련 법·제도 및 교육과정의 시사점

국외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하는 학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간교육을 진행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 미국, 영국, 핀란드에서는 정규교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총합적 학습시간, 방과후 수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공간교육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국내에서 공간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용어 정의, 대상이나 범위,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 국외의 사례 검토는 공간교육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표 3 참조).

표 3. 법·제도 및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국가명	공간교육
미국	· 법·제도: 정규교과목 인정(1996) · 교육과정: Learning by Design, Architecture and Children 등 선택과목, 방과후학교, 학교외과정으로 진행
영국	· 법·제도: 법정교과(Design and Architecture) 인정(2000) · 교육과정: Architects in Residence 등 선택과목으로 진행
핀란드	· 법·제도: 기본예술에 관한 법률(1992)에 의한 예술과목에 공간교육 추가(1993)/건축정책(1998)/초·중·고 정규과목 확대(2006) · 교육과정: Environmental Aesthetics, Architecture and Design 등 선택과목으로 진행
일본	· 법·제도: 미비 · 교육과정: 특별활동, 총합적 학습시간, 방과후수업 등으로 진행
한국	· 법·제도: 건축기본법(2008), 건축정책기본계획(2010) · 교육과정: 미비 (이벤트 행사, 전문고등학교)

3. 공간교육의 체계(system) 및 역할

1) 미국

미국에서는 공간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A+DEN(Architecture+Design Education Network, 2005)이 구성되었다. A+DEN은 공간교육의 프로그램, 학습계획, 자료 등을 제공하고, 조경·도시·건축 전문가와 교육자의 양성을 도모한다. 즉, 관련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적합한 공간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동시에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하여 공간교육의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미국 건축재단(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 AAF)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통로가 존재한다.

A+DEN에서 제공하는 공간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역 건축재단센터(Center for Architecture Foundation, CFAF) 및 공간환경센터(Center for Built Environment, CUBE)에서는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 타 교과목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이와 같이 자치주 단위의 지역 건축재단센터(CFAF)가 큰 비중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는 미국의 지형적 특징과 규모, 문화적 다양성, 자치주(state)에 따른 법체계의 차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1 참조).

2) 영국

영국에서는 영국건축가협회(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와 국가교육연구소(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NFER)의 재정적·학술적 지원을 토대로 공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CABE와 English Heritage를 주축으로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인 Engaging Places가 구성되어 공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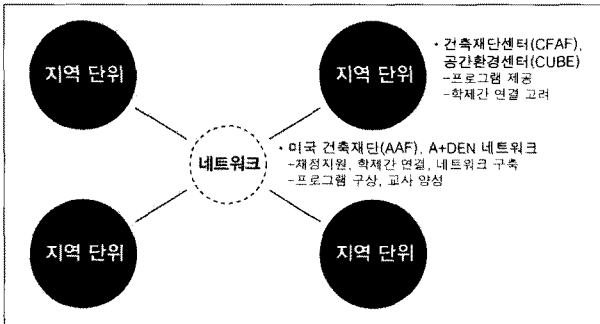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공간교육 체계의 특징 (지역 중심)

는 관련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제로 실행력을 제고시킨다.

특히 공간환경위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에서는 프로그램 및 자료(Kit), 교사 가이드를 개발·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각종 워크숍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또한 Open-City(구 Open House) 등의 건축교육기관에서는 지역의 조경·도시·건축 전문가 인력풀 구성, 공간교육 프로그램 제공, 관련 연구 진행, 캠페인 실시, 교사 양성, 아카이브 구축 등 미시적 관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CABE, Engaging Places를 중심으로 조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관련 분야 간 통합이 잘 이뤄지고, 네트워크가 정교하게 구성된 것이 영국 공간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3)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교육부(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FNBE)가 공간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 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정책에 의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 교육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비가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핀란드 건축가협회(Finn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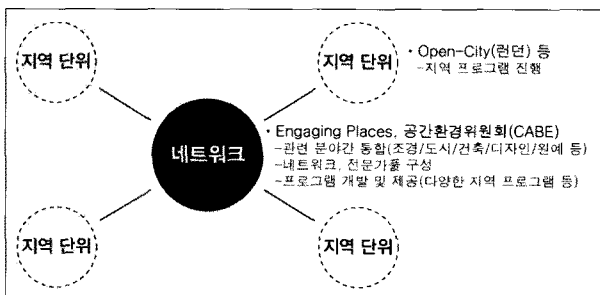


그림 2. 영국 공간교육 체계의 특징(네트워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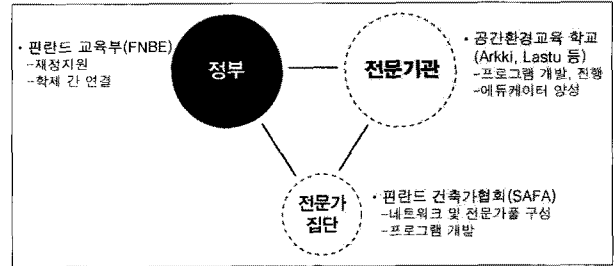


그림 3. 핀란드 공간교육 체계의 특징(정부 중심)

Association of Architects, SAFA)에서는 공간교육에 대한 교육 지침서, 교재 등의 기획 및 출판,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한다. SAFA는 조경·도시·건축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핀란드에는 특징적으로 Arkki(1994년 설립)와 같은 공간교육 학교가 존재한다. 이곳은 여러 학교와 연계하여 3~18세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매년 800여명의 어린이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에 대해 워크숍, 캠프 등 단기과정 코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신청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활동을 통하여 매주 정해진 시간의 장기과정 코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핀란드디자인박물관, 건축박물관, 알바알토박물관 등에서 공간환경과 관련한 워크숍, 어린이 전시회,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공간환경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유도한다(그림 3 참조).

4) 일본

일본에서는 일본건축가협회(The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JIA)의 지역 지부가 조경·도시·건축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공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한다. 또한 센다이 어린이 건축센터(Architecture and Children Network of Sendai)와 같은 기관에서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워크숍, 여름캠프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미비한 상황으로 대부분 신청학교에서 재료비와 교재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조경·도시·건축 전문가의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마가타 대학교(Yamagata University) 등 일부 대학교에서 어린이의 공간과 공간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즉, 일본의 공간교육은 지역 베이스의 JIA 지부 혹은 건축센터와 신청 초등학교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체계로 구성된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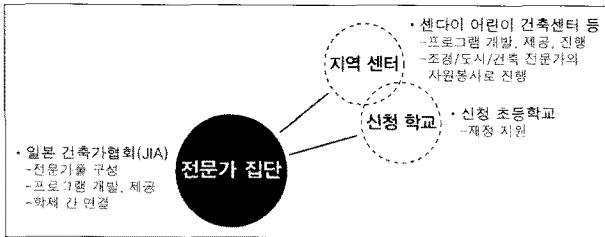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공간교육 체계의 특징(전문가집단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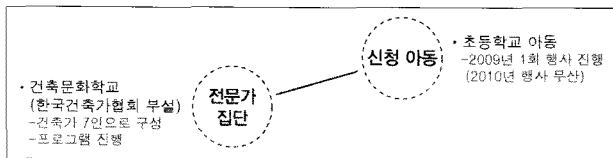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공간교육 체계의 특징(체계 미흡)

5) 한국

한국은 아직 공간교육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건축문화학교(한국건축가협회 부설기관)가 2009년 개관하여 1회의 '어린이 건축 교육'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시작단계로서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에듀케이터가 건축가 7인으로만 구성되고 건축에 대한 주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보아, 조경·도시·건축의 다각적 측면은 배제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직 전체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기관(건축문화학교)의 성격과 위상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2010년 행사가 무산된 것으로 미루어 일회적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그림 5 참조).

6) 체계 및 역할의 시사점

비중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파트너십(네트워크) 및 전문가풀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제 간 연결, 에듀케이터 양성, 재정 지원, 연구 진행, 아카이브 구축 등 7가지 체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여러 주체들이 서로 연계되어야만 공간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 즉, 전문가, 어린이, 교사, 학교, 관련 기관, 정부 등 각 주체의 역할 규정 및 관계 정립을 통해 각자의 의무를 인식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표 4 참조).

4. 공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1) 미국






미국 공간교육의 과정은 대표적으로 '디자인에 의한 교육(Learning by Design)'과 '건축과 어린이(Architecture and Children Curriculum)'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K-12의 학생들(6세~17세)에게 다양한 공간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치구별로 유동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현장답사, 전시, 워크숍,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속적인 워크숍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공간교육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고 정규과목과의 연결점을 찾고자 한다. '건축 탐험(Discovering Architecture)' 등의 여름캠프는 Harvard, Cornell 등 50개 대학과 연계되어 2~6주 정도 운영된다. 매년 40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하며, 일부 학생은 관련 학과에 진학한다.

즉, 미국 공간교육 과정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미래시민의

표 4. 체계(system) 및 역할의 비교 검토

국가명	파트너십(네트워크), 전문가풀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제 간 연결	에듀케이터 양성	재정 지원	연구 진행	아카이브 구축
미국	• A+DEN 네트워크 (AIA+CAF+AAF)	• A+DEN 네트워크 • 지역 건축재단센터(CFAF) • 공간환경센터(CUBE) • 시카고건축재단(CAF)	• 건축재단(AAF) • 공간환경센터(CUBE)	• A+DEN 네트워크 (AIA+CAF+AAF)	• 건축재단(AAF) • 시카고건축재단(CAF)	-	-
영국	• Engaging Places 네트워크 • 건축교육기관 (Open-City)	• Engaging Places 네트워크 • 공간환경위원회(CABE) • 건축교육기관(Open-City)	• 공간환경위원회(CABE)	• 공간환경위원회(CABE) • 건축교육기관 (Open-City 등)	• 영국 건축가협회(RIBA)	• 공간환경위원회(CABE) • 건축교육기관(Open-City 등) • 교육연구소(NFER)	• 건축교육기관(Open-City)
핀란드	• 핀란드 건축가협회(SAFA)	• 건축가협회(SAFA) • 공간교육 학교(Arkki, Lastu) • 관련 박물관(알바알토박물관)	• 핀란드 교육부(FNBE)	• 건축가협회(SAFA) • 공간교육 학교(Arkki, Lastu) • 관련 박물관(알바알토박물관)	• 교육부(FNBE)	• 대학교(유비스퀼라대학교)	-
일본	• 일본 건축가협회(JIA 지부) • 공간환경 관련 센터(샌다이 건축센터)	• 일본 건축가협회(JIA 지부) • 공간환경 관련 센터(샌다이 어린이 건축센터)	• 일본 건축가협회(JIA 지부)	• 일본 건축가협회(JIA 지부)	• 신청학교(초등학교)	• 대학교(야마가토대학교)	-
한국	-	• 건축문화학교(한국건축가협회 부설기관)	-	-	-	-	-

표 5. 프로그램 내용의 비교 검토

국가명	교육대상	범위	내용 및 방식	연계과목	프로그램 사진(예시)
미국	· 6세~17세 (K-1~K-12) - 선택, 학교외, 방과후학교	· 조경· 도시· 건축	· 수업(오감체험· 관찰· 토론· 만들기· 그리기), 현장답사, 전시, 여름캠프 - 오감체험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 친환경적 시각, 구조와 환경적 맥락 이해 - 도시의 기본 사항 이해 - 이쉴시게, 머쉬멜로우, 박스 등 다양한 재료로 공원, 도시 등 구상	· 언어, 사회, 예술, 수학, 과학	 ParKitecture(CAF)
영국	· 7세~15세 (Key stage 1~4) - 법정교과, 선택 · 16세~17세 (A-Level) - 직업교육	· 조경· 도시· 건축	· 수업(오감체험· 슬라이드· 관찰· 토론· 발표· 역할극· 그리기· 만들기), 행사, 캠페인, 현장답사, 평가 - 오감으로 커뮤니티 이해, 장소의 이야기 구상 - 지속가능성 이해, 미래시민의 역할 습득 - 역사와 문화의 이해, 의사결정과정 참여	· 전과목	 Green Day(CABE)
핀란드	· 6세~18세 (Koulu, 종합학교 1~9학년) - 선택, 학교외, 방과후학교 · 일반	· 조경· 도시· 건축	· 수업(놀이· 오감체험· 토론· 만들기· 그리기), 현장답사, 전시, 행사 - 공간의 기본요소 습득 - 확장되는 공간의 개념과 느낌 학습 - 연령별 프로그램(3~6세, 7~14세, 15~18세) 진행	· 전과목	 공간으로 가는 길(Arkki)
일본	· 6세~11세 (小學校, 소학교 1~6학년) - 특별활동, 종합적학습시간, 방과후수업	· 조경· 도시· 건축 - 조경· 도시의 비중이 큼	· 수업(슬라이드· 토론· 그리기· 만들기), 현장답사, 행사 - 다양한 장소 직접 방문, 경관 관찰 - 환경· 역사· 문화 이해, 의사결정과정 참여 - 아름답고 살기좋은 거리, 공원, 도시 만들기 방안 모색	· 언어, 지리, 사회, 예술, 환경, 역사	 조경· 도시· 건축
한국	· 10세~12세 (초등학교 4~6학년) - 신청자에 한해 행사로 진행 · 일반	· 조경· 도시· 건축 - 건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행사(이론· 토론· 역할극· 그룹작업· 만들기· 발표), 전시, 평가 - 창조적 문제해결능력과 시각적 사고능력 고양 - 입지· 기후· 지형의 중요성, 공간구성· 배치 능력 배양 - 공간의 구성요소, 커뮤니티 이해	-	 행사(건축문화학교)

역할을 학습시키고, 지역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도시 계획가처럼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2) 영국

영국 공간교육은 대표적으로 '내가 사는 곳의 건축(Architects in Residence)'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토대로 '녹색 런던 디자인하기(Designing a Greener London)'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규과목과 연계되어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장소와 사람의 관계, 지역성과 커뮤니티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지속가능한 영국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즉, 느끼고 표현하기, 관찰하고 분석하기, 말하기와 쓰기, 그리기와 만들기, 개선방안 구체화하기 등 지역 커뮤니티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정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교사용 자료(Kit)를 만들어 제공하고, 공간교육을 실행한 후 반드시 교사와 전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더 나은 공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3) 핀란드

핀란드 공간교육은 교육부와 SAFA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Arkki, Lastu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 현장답사, 전시, 행사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타 과목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치원 교사의 심화 과정, 학생과 종사자를 위한 직업교육, 공무원 교육,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등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정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특정적으로 공간의 기초적 부분을 시작으로 공간과 자연의 관계 이해, 공간의 계획과정 학습, 표현능력 습득 등을 도모한다. 즉, 빛·형태·스케일 등 공간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공간의 최소 단위의 개인적 영역을 인지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오감을 통한 경험을 강조하며, 놀이를 통해 배우는 입체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을 중시한다. 또한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프로그램을 구성·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4) 일본

일본 공간교육은 대부분 워크숍, 행사, 현장답사 등의 방식

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일회적·단기적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이유는 정규교과목 시간이 아닌 총합적 학습시간, 방과후수업, 주말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공간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공간교육의 특징은 대부분 그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국한된다는 점과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도시, 경관 등 통시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마을, 거리 등 구체적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마찌즈꾸리)가 활성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한국

한국의 경우, 건축문화학교에서 2009년 7월 21일~25일(5일간) 진행한 '제1회 어린이 건축 교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행사는 신청아동 40명(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조·형태·색·빛 등 공간의 구성요소와 입지·기후·지형의 중요성, 커뮤니티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 연구 등이 미흡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에 국한되어 포괄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다뤄지지 못하며, 2010년 제2회 행사가 무산되어 일회적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6) 프로그램 내용의 시사점

국외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 스튜디오와 연계되어 직업교육으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조경·도시·건축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워크숍, 세미나, 출판 등과 수업, 현장답사, 여름캠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감을 이용하여 공간을 느끼고 공간의 기본요소를 터득하며, 미래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공간교육'은 조경·도시·건축을 포괄하며,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되어 어린이가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표 5 참조).

V.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 공간교육은 대부분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간교육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며, 건축문화학교의 어린이 건축교육, 문화도시연구소의 K-12건축학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공간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1. 국외 공간교육의 경우, 대부분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지니며 국제 네트워크(UIA BEE, PLAYCE 등)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즉, 공간에 대한 이해, 디자인의 가치 인식, 전문가와 일반인의 소통, 공간조성과정에서의 역할 습득, 의사표현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고양 등의 목적을 지닌다.
2.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신설하

표 6. 사례 국가의 공간교육의 특징 및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국가명	목적 · 효과	법·제도		체계·역할	프로그램	국내 적용가능성
		제도기반	교육과정			
미국	유사	·법정교과	·선택·방과후·학교의과정	·지역 중심* -지역건축재단센터, 공간환경센터	유사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하여 유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지역베이스의 관련 기관(공간센터, 건축센터 등)이 필요하며, 적절히 활용해야 함
영국	유사	·법정교과	·선택	·네트워크 중심* -네트워크, 공간환경위원회	·Kit제공, 평가*	·조경, 도시, 건축, 디자인,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 간에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프로그램 자료뿐 아니라, 교사용 Kit를 제공하여 정확하게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핀란드	유사	·법정교과 ·관련제도*	·선택	·정부 중심* -교육부, 환경부 ·건축 기관	·연령별 프로그램	·추후, 공간교육 관련 제도와 정부의 역할을 통한 실행력 제고와 적극적인 형태인 공간교육 전속기관의 가능성 및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일본	유사	없음	·특별활동·방과후·총합적 학습시간*	·전문가 집단 중심 -건축가협회	유사	·일본의 총합적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의 교과과정과 가장 유사함. 교과외교육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⁶⁾ 시간에 편성하여 활용이 가능함

* 자료 분석 및 인터뷰를 토대로 해석(내용의 * 표시는 국가의 특징 강조)

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미국, 영국, 핀란드의 경우, 2000년에 정규교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에서는 공간교육 관련 법이 정립되었다. 일본의 경우, 국내와 가장 유사한 학제와 법제를 지닌 일본의 경우, 종합적 학습시간, 방과후 수업 등으로 공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교과외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편성하여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대부분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학제 간 연결, 에듀케이터 양성, 재정 지원, 연구 진행, 아카이브 구축 등 7가지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풍성한 전문가 풀을 토대로 여러 주체들이 상호 연계되어 공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국내의 실정을 고려하여 미국의 지역성에 대한 고려, 영국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 구성, 핀란드의 관련 제도와 정부의 역할 정립 등 반영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대부분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및 단위에서부터 주변의 마을, 공원, 건축물 등 조경, 도시, 건축의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오감체험, 관찰, 놀이, 토론, 만들기, 그리기 등으로 구성된 수업, 현장답사, 워크숍, 전시, 여름캠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과 동시에 교사용 Kit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며,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평가 과정으로 공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공간의 조성과정에 대중의 참여기회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공간교육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가로, 공공공간, 건축물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고, 공간의 조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간교육은 공간과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이해, 의사표현 및 결정능력의 배양을 도모하고, 미래의 도시개선에 적극적인 소임을 할 미래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본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아직 조경·도시·건축의 역할 분담,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전문가의 참여 정도, 사회교육과 정규교육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국내 실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전문가의 역할을 제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 1. Sommerville(2000)은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수용하여 조경 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소통하는 조경'이라고 하였다. 사람 사이의 이론(interpersonal theory)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형 계획 및 설계에 참여한 5명의 조경가를 인터뷰하여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주 2. 건축기본법(법제처, 2008)과 이를 근거로 제정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10)에는 '건축기초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초·

중·고등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한 기초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주 3. Place는 '장소'이지만, 국내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고려하면 '공간'교육이 더 자연스럽다. 자신의 일상공간으로부터 확장된 다양한 규모의 공간과 장소, 경관, 도시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뜻을 담는다. 이는 2010년 11월 22일(월)~12월 6일(월) 2주간 환경교육 전문가 15인, 디자인교육 전문가 15인, 참여계획 및 아동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조경·건축·도시 전문가 30인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32인이 회신(회수율 53.3%)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주 4. 학제와 관련 법제가 유사한 일본, 국내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과 영국,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여 교육과 디자인의 강국인 핀란드 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주 5. 본 연구에서는 사례 국가의 실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 방문, 프로그램 참가,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및 문헌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관련 홈페이지의 내용(인용문헌 29 참조)과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 주 6.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영역으로 편성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이다.

인용문헌

1. 국토해양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2. 권은숙(1997) 초·중등 디자인교육에 대한 기초연구: '디자인을 기초로 한 교육'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5(20): 87-96.
3. 김연금, 이규목(2003)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조경계획 및 설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5): 73-85.
4. 김연금, 김성주, 박환지, 유다희, 최성용, 홍승모(2008)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6): 21-28.
5. 김연아(1998) 디자인교육에 있어 시·지각 원리를 통한 창의력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원필(2002) 아동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경험에 현 거주공간의 개인영역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8): 3-11.
7. 김인호(2002) 학교조경활동 참여에 따른 환경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김혜숙, 권은숙(1999)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국내 디자인 교육의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2(4): 191-200.
9. 남상준(2010) 환경교육론. 서울: 대학사.
10. 법제처(2008)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11. 손연석(2005) 영국의 초등학교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8(2): 243-254.
12.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13. 임승빈(1998) 조경이 만드는 도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4. 윤주연(2004) 교실 내 식물 가꾸기 활동을 통한 환경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정은희(2004) 개념 변화 수업에서 협동학습 환경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커뮤니티 디자인센터(2009)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다: 주민참여로 가꾸어 나가는 삶의 공간. 서울: 나무도시.
17. Alexander, Christopher(1975) A Pattern Language: Towns, Buildings,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8. Davies, L.(1996) 교육적 개혁에 있어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한국교육연구.
19. Feimer, N. R.(1981) Environment perception and cognition in rural context. In A. W. Cilds & G. B. Melton(Eds). Rural Psychology. NY: Plenum Press.
20. Holahan, C. J.(1982) Environment Psychology. NY: Random House, Inc.
21. Roe, Maggie(2000) Landscape planning for sustainability: Community participation in estuary management plans. Landscape Research 25(2): 157-181.

22. Roe, Maggie(2006) Making a wish: Children and the local landscape. Local Environment 11(2): 163-181.
23. Sanoff, Henry(1990) Designing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윤장섭(역), 커뮤니티 참여 디자인 방법론. 서울: 태림문화사, 1990.
24. Savery, H. R. and T. M. Duffy(1995) Problem based learning: An instructional model and its constructivist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vol. 35, pp. 31-38.
25. Sommerville, Shiona L.(2000) Communicating landscape architecture, A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duate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Guelph.
26. Thompson, Ian H.(1999) Ecology, Community and Delight Sources of Values in Landscape Architecture. London: E&FN Spon.
27. Ward, C.(1978) The Child in the City. London: Architectural Press.
28.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심승희, 구동희(역),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29. <http://www.adenweb.org>
30. <http://www.aia.org>
31. <http://www.archiaa.org>
32. <http://www.architecture.com>
33. <http://www.arkki.nu>
34. <http://www.cabe.org.uk/education>
35. <http://www.cfafoundation.org>
36. <http://www.cubekc.org>
37. <http://www.engagingplaces.org.uk>
38. <http://www.jia-kanto.org>
39. <http://www.playce.org>
40. <http://www.designfordwelling.blogspot.com>
41. <http://www.open-city.org.uk>
42. <http://www.uibee.riai.ie>

원 고 접 수 일: 2010년 10월 7일
 심 사 일: 2010년 12월 3일(1차)
 2011년 2월 20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1년 2월 20일
 3 인 의 명 심 사 필